

월간 양돈 창간 17주년을 맞이하여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월간양돈이 창간 17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당시 창간호가 중간호가 되기 쉬웠던 여건에서 창간 17주년을 맞아 감회가 새로우며 월간양돈 발행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홍보부 직원들과 편집위원, 집필진, 광고주, 유관기관, 회원을 비롯한 양돈인들의 노력으로 오늘이 있게 되었다.

지난 17년간은 우리나라 양돈산업이 몇번의 불황은 있었지만 대체로 4배 이상의 양적 성장을 통해 온실속에서 자라왔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WTO체제의 출범으로 돼지고기가 의무적으로 (MMA) 수입되어 자급자족에서 돼지고기 수입국으로, 국제경쟁에 대한 한파속으로 나오게 되었다. 물론 수출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수입량을 초과하기는 피하는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우리 경제가 그러하듯이 양돈업도 많은 거품을 제거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게 되었다. 사료비에 포함된 거품과 인건비에 지출되는 거품 등 모든 분야에서 낭비요소를 최대한 줄여 나가야 경쟁이 가능하게 된다.

우리 양돈농가도 분뇨처리, 인건비 상승 등 생산 여건이 어려워지게 되자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캐나다 등지로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생산된 돼지고기가 수입되면 이제는 신토불이만 외치거나 애국심에 호소하는 전략으로는 불가능하게 된다. 이제는 사료값 DC의 비율(몇 %인가)이 양축가의 권위로 착각하며 축산을 하는 시기는 이미 지나가고 있다. 양돈이 투자수익률은 낮고, 질병, 가격 등 위험 부담률은 높아 자본이 투입되지 않기 시작하는 조짐이 최근 보이기 시작하는데 사양화를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함은 물론이다.

최근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보건복지부 내에 식품의약품안전본부(FDA)를 신설한 것도 이를 잘 반영하는 것이다. 생산자의 기술발전은 거북이인데 국민기호는 토끼처럼 빠르게 향상되기 때문에, 돼지고기의 품질개선도 각자가 아닌 생산자가 뭉쳐서 해결하여야 한다.

지난번 고름우유 파동후 지난 6월 21일 한 우유처리장이 대장균수치 과다로 제조정지 처분을

66

그동안 우리 경제가 그러하듯이 양돈업도 많은 거품을 제거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게 되었다. 사료비에 포함된 거품과 인건비에 지출되는 거품 등 모든 분야에서 낭비요소를 최대한 줄여 나가야 경쟁이 가능하게 된다.

99

받고, 수입 쇠고기의 한우둔갑 판매와 죽은 소의 도축 판매 등이 잇달아 매스컴의 보도가 언제 돼지고기에도 불뚱이 떨어질까 조심된다. 우리는 늘 아무도 시비걸 수 없는 원칙적인 말만을 하지 실제 개선을 위한 노력에는 등한하기 쉽다.

돼지고기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하여 97년 1월 1일부터 집중적인 단속이 시작되는데(쇠고기, 닭고기는 96.7.1부터 시행) 지난번 소비자단체 대표가 휴약사료의 판매량이 너무 적은 것을 지적한 것은 우리가 시정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선진국으로 가는데는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김득구 선수처럼 링 위에 올랐다가 죽으면 안된다. 다운이 되어도 안되며 오직 승리만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21일 정부는 공무원도 외국인을 수입해서 채용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공무원도 이제는 새로운 경쟁체계가 도입되었다.

생선을 산 채로 수송하기 위하여 생선을 잡아먹는 물고기를 한 두마리 함께 섞어 놓으면 살기 위해서 긴장하기 때문에 모두 산 채로 운반이 가능하다고 한다.

현대인은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숫자를 맞추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젓먹던 힘을 다 발휘한다. 그리고 상사로부터 목표달성을 못하였다고 꾸지람을 듣는다.

창간 18주년을 맞는 내년 7월호는 돼지고기, 닭고기의 전면 수입개방이 특집으로 실리겠으며, 그때에는 수입돼지고기와 경쟁가능한 목표 생산비를 정해놓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노력은 몇 배 더하고 소득은 적어지고 힘든 양돈업이 시작되지만, 그러한 경쟁을 통해서 양돈산업은 안전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보람을 찾아야 할 것이다.

월간양돈은 힘들어지는 축산업계와 그 중에서도 양돈업의 발전을 위해 모든 기술정보, 경영정보를 제공해서 양돈농가들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금까지 17년이 성장기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아직 충분한 성년은 아니지만 국제화시대에 성숙된 청년으로 한국양돈산업의 길잡이 역할을 다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7년간의 성원처럼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의 성원이 에너지가 되어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이다.